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이 22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최다빈·김하늘 내일 피겨 싱글

4대륙 선수권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막을 약 보름 앞두고 한국 피겨스케이팅 대표팀 선수들이 마지막 리허설 무대에 오른다.

피겨스케이팅 올림픽 대표팀 여자 싱글 최다빈(수리고), 김하늘(명춘중), 페어 김규은-김강찬, 아이스댄스 민유라-김민은 24일부터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국제빙상경기연맹(ISU) 4대륙 피겨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이들은 4대륙 선수권대회를 통해 올림픽 프로그램을 최종점검하고 몸상태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대회 첫날인 24일엔 여자 싱글, 페어 쇼트프로그램과 아이스댄스 쇼트댄스가 열린다. 여자 싱글엔 최다빈과 김하늘, 박소연(단국대)이 출전한다.

페어 종목은 총 11개 팀이 경쟁하는데, 북한 럽대옥-김주식 조도 참가한다. 이들은 평창올림픽 출전권을 자력으로 획득한 북한 피겨 간판이다.

남자 싱글은 25일 시작한다. 평창올림픽에 출전하는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휘문고)은 훈련에 전념하기 위해 이번 대회 출전을 포기했다. 대신 올림픽 출전권을 코앞에서 놓친 이준형(단국대)과 유망주 안건형(수리고), 이시형(판곡고)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이상호 스노보드 월드컵 7위

26일 7차 월드컵

한국 스노보드의 간판 이상호(23)가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에서 시즌 두 번째로 8강에 올랐다.

이상호는 21일 슬로베니아 로글라에서 열린 2017-2018 FIS 스노보드 월드컵 알파인 남자 평형 대회전에서 1, 2차 시기 합계 1분 06초 52를 기록해 출전 선수 63명 가운데 10위로 16강에 진출했다.

토너먼트로 진행된 결선에서 이상호는 안드레아스 프롬메거(오스트리아)와 16강전을 0.06초 차로 이겨 8강에 올랐다.

이상호가 2017-2018시즌 월드컵 8강에 오른 것은 이달 초 오스트리아 대회 7위 이후 두 번째다. 그러나 이상호는 준준결선에서 실범 뒤푸르(프랑스)에게 0.78초로 저 4강 진출에는 실패, 7위로 대회를 마쳤다.

이상호는 지난해 3월 터키 월드컵에서 2위에 올라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월드컵 메달을 획득했다. /연합뉴스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최선의 해결책 찾겠다”



백지선 남자 아이스하키 국가대표팀 감독이 22일 충북 진천군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D-17

백지선 남녀 총괄 디렉터 “머리 감독 문제 해결 역량 충분...남자 대표팀 금메달 목표”

단일팀과 관련해 저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다. 정부의 시각과 우리 여자 선수들이 느끼는 것, 그리고 한국 국민이 바라보는 관점이 모두 다를 수 있다”며 “그 관점에 따라 남북 단일팀에 접근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는 점”이라며 “이슈가 무엇이든,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것이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백 감독은 남녀 대표팀 총괄 디렉터이기도 하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사령탑

인 새러 머리(30·캐나다) 감독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에 추천한 이도 백 감독이다.

그는 “머리 감독과는 항상 많은 대화를 나눈다. 그는 팀에 대한 지배력을 갖춘 매우 강한 여성”이라며 “우리는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며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머리 감독의 것이다. 머리 감독이 충분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지난 18일 평창 동계올림픽에 나설 25명의 최종 엔트리를 발표한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

서 캠프를 열어 결속력을 다졌다.

30일까지 진천선수촌에서 전력을 가다 듣는 ‘백지선호’는 2월 1일부터 인천과 안양에서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러시아와 총 4차례 평가전을 갖고 평창 올림픽 준비를 마친다.

백 감독은 “우리의 목표는 변함없이 금메달”이라며 “지기 위해 준비할 거면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기고자 하며 목표는 금메달이다. 우리 선수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지켜봐 달라”고 했다. /연합뉴스

‘주전 낙오 없다’ KIA 스프링캠프 55명 31일 日 오키나와행



KIA 타이거즈가 2018 스프링캠프에 참가할 선수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스프링캠프에는 김기태 감독을 비롯한 코칭스태프 15명, 선수 40명 등 55명의 선수단이 참가한다.

투수조는 양현종, 임창용, 헛터, 팻턴, 윤석민 등 19명이며, 포수 조는 김민식, 백용환, 한승택, 한준수 4명이다. 김주찬, 이범호, 김선빈, 안지홍, 정성훈, 최원준 등 내야수 11명과 최형우, 나지완, 버나디나 등 외야수 6명도 캠프를 통해 새 시즌을 준비한다.

부상으로 2017시즌을 소화하지 못했던 윤석민이 2년 만에 캠프에 나서고, 한기주와의 트레이드를 통해 KIA로 온 이영욱과 LG에서 방출된 뒤 15년 만에 고향팀으로 온 정성훈도 오키나와로 건너간다.

또 2차 드래프트를 통해 KIA 유니폼을 입은 유민상과 황윤호도 스프링캠프에서 눈도장 찍기에 나선다.

이번 캠프 참가자 가운데 신인은 포수 한준수(1차 지명)가 유일하다. 신인 투수들은 부상 우려로 1군 캠프에서 제외됐다.

스프링캠프 선수단은 오는 31일 일본으로 출국해 3월 8일까지 오키나와 킨구장에서 훈련을 한다.

캠프는 ‘3일 훈련 1일 휴식’ 체제로 진행되며, 선수단은 체력 및 기술·전술 훈련을 소화한 뒤 2월 중순부터 한국 및 일본 팀들과 12차례의 연습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키운다.

내달 14일 킨 구장에서 열리는 라쿠텐 이글스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일본 프로팀들과 8차례의 연습경기가 예정되어 있고, 3월 1일 한화 이글스(킨 구장) 등 국내 팀들과도 4차례 연습경기를 치를 계획이다.

◇2018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명단
▲코칭 스태프(15명) : 김기태 정회열 코우조 신동수 김민호 김중국 홍세안 김민

우 이대진 서재웅 김상훈 박종하 배요한 정상욱 고영득 ▲투수(19명) : 양현종 임창용 윤석민 김세현 심동섭 임기준 김윤동 임기영 정용은 홍건희 한승택 문경찬 박정수 이민우 이종석 유승철 이윤학 헛터 팻턴 ▲포수(4명) : 김민식 한승택 백용환

한준수(신인) ▲내야수(11명) : 김주찬 이범호 정성훈 서동욱 김선빈 안지홍 최원준 김지성 노관현 최정민 황윤호 ▲외야수(6명) : 최형우 나지완 이범기 이영욱 유민상 버나디나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내달 21~24일 오키나와 캠프 참관하세요” 35명 선착순

KIA타이거즈가 ‘오키나와 스프링캠프 참관단’을 모집한다.

참관단은 내달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KIA 스프링캠프가 차려진 오키나와를 찾아 선수단을 응원하고, 한신 타이거즈, 히로시마 도요 카프, 요코하마 DeNA 베이스타즈와의 연습경기를 관람하게 된다. 오키나와 관광, 선수단과의 식사 등의 프로그램도 준비됐다.

참가비는 성인 1백32만원, 아동(2006년 2월생 이후)는 1백20만원이다. KIA 서한국 응원단장이 동행해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게 된다.

참관단에는 스프링캠프 모자와 기념 티셔츠가 기념품으로 증정된다. 또 올 시즌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경기 중 1경기의 스카이 박스 관람 혜택(참관단 본인 한정)이 주어진다.

이번 참관단 모집은 23일 오전 10시부터 30일까지 진행되며, 대행사(하나투어 1522-4546)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모집인원은 35명 선착순이다.

단, 참관단 투어는 신청 인원이 20명 이상일 경우에만 진행된다. (문의 마케팅팀 070-7686-8044)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존 허 PGA 커리어빌더 챌린지 공동 3위

재미교포 존 허(28·허찬수·사진)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커리어빌더 챌린지에서 공동 3위를 차지했다.

존 허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의 PGA 웨스트 TPC 스타디움 코스(파72·730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이글 1개와 버디 6개, 보기 2개를 묶어 6언더파 66타를 쳤다.

최종합계 20언더파 268타를 기록한 존 허는 애덤 헤드윈(캐나다) 등과 함께 공동 3위에 이름을 올렸다.

PGA 투어 통산 1승을 기록하고 있는 존 허가 톱 10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3월 발스와 챔피언십(공동 9위) 이후 처음이다.

선두에 5타 뒤진 14언더파로 출발한 존 허는 1번 홀(파4)에서 보기로 출발했으나, 7~9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으며 순위 경쟁에 뛰어들었다.

11번(파5)과 12번 홀(파4)에서도 1타씩을 줄인 존 허는 13번 홀(파3)에서 1타를 잃으며 주춤했다. 그러나 16번 홀(파5)에서 그린 주변에서 친 세 번째 샷이 홀에 빨려 들어가면서 이글을 잡아냈다.

17번 홀(파3)에서도 버디를 잡아 공동 3



위까지 뛰어올랐다. 마지막 홀(파4)에서는 버디 퍼팅이 어렵게 홀을 빗나가면서 순위를 더 끌어올리지는 못했다.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컷을 통과해 4라운드에 진출한 강성훈(31)은 이날 두타를 잃어 최종합계 8언더파 280타로 공동 63위로 마감했다.

우승은 세계랭킹 3위 온 람(스페인)에게 돌아갔다. /연합뉴스